

석기시대 이후 어머니 사랑의 전통

샤리 쉐러 지음 「모성의 신화」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다르르 작
「예술가의
어머니(혹은
아내)」.

어머니를 주제로한 가장 최근의 출판 경향은 형편없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머니의 위상에 대한 강조는 딸들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속에 얽어매려는 음모라고 보는 페미니즘의 관점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녀들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도발적인 딸들의 입장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샤리 쉐러(Shari L. Thurer)의 잘 짜여진 설명으로 씌어진 「모성의 신화」(*THE MYTHS OF MOTHERHOOD, How Culture Reinvents the Good Mother*, 381 pp.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는 産苦를 경험해 본 여성들을 겨냥한 긍정적이고 감각적이며 손쉽게 읽히는 역사책이다. 뛰어난 서문 속에서 저자는 현대의 어머니들이 처한 곤경에 주목한다. 그녀는 오늘날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머니 노릇의 그 힘겨움뿐만 아니라 그외에 여성 자신을 위한 또다른 짐들, 말하자면 자기 성취를 위한 욕구라든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 따위에 대해 연민의 눈길을 보낸다. 그녀는 인간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의 자식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

보스톤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 쉐러는 언제나 생동감있는 글을 써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은 ‘도덕적 명령’의 지위를 획득해 왔

지만” 반면에 “부모로서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팽만해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결과로 해서 오늘날 어머니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의 귀중한 즐거움의 꾸러미들(자식들)로 하여금 도끼 살해범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의 대답은 어머니의 사랑이란 ‘도덕적 명령’이 아니며 또한 모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다독거림이다. 즉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오늘날의 상식적인 이상형은, 모든 이상들이 다 그렇듯 문화에 따라 다르며,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절망적일 만큼 유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그녀는 석기시대로부터 모성에 대한 전통을 추적하는데, 이 시대를 여성들이 신으로 간주되었던 “신석기적 전원시대—평화와 성적 평등의 시대”로 부른다. 한편 역사시대의 시작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고대 신화속에서 “모든 어머니 여신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내놓는 데서 잘 나타난다”고 본다. 중세는 성처녀 마리아의 전성시대인데, 마리아가 결혼한 여성인 아내로서보다 처녀로서 숭앙된다는 것은 “권위가 부부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사회)에 존재하는” 시대상의 投射로 본다. 그리고 저자는 훌륭한 어머니(賢母)에 대한 근대적 관념은 봉건주의의 몰락과 관련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에 대

한 자료들이 아무래도 제일 흥미를 끈다. 저자로서는 고대에서 페미니즘의 대중적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황금시대”인 그리스는 더더욱 그랬을 터이다. 그런 경우에서도 저자는 어린이 유키와 같은 감추어진 사실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과연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인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남성에 의해 조직된 사회를 비난함으로써 답한다.

또는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녀는 마리아가 아무리 신의 어머니로 추송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 어머니일 뿐, 이 땅위의 여성의 지위 변모에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신약 성경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훗날의 진보적인 주석들이 여성의 권위를 높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러한 역사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깡총거림’은 현대의 어머니의 위상이 선조들에 비해서는 대략 나은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세트로써 기능하고 있다. 요컨대 저자 쉐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수세기동안 여성들은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오늘날의 가장 바쁜 커리어우먼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

왕조의 멸망과 깨어나는 중국

오늘날 중국을 뉴스의 초점으로 만드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경제발전이며 또 하나는 정치적 탄압이다. 우리는 중국관 수송소 군도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이 일반 잡범들과 섞여 미국 시장에 내다 팔 값싼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리고 ‘꼬방랑 팔십객’(등소평)이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함께 해안 지역의 경제적 붐과 값비싼 나이트 클럽,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기, 금융사기 그리고 환상적인 경제 통계 등에 대해서도 듣는다.

이 양면의 중국, 다시말해 새로운 번영의 중국과 구닥다리 압제의 중국의 두 모습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뉴욕타임즈의 베이

징 특과원으로 재직하면서, 1989년 천안문 학살사건을 취재 보도하여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D. Kristof)와 셰릴 우둔(Sheryl Wudunn)의 「깨어나는 중국」(*CHINA WAKES,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Rising Power*, Illustrated. 501 pp. New York: Times Books/Random House.)의 주제이다(크리스토프와 우둔은 부부사이인데, 각각 독립적으로 쓴 부분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 이 책이다). 중국인들은 한손에는 민주주의의 열망과 또 한손에는 이른바 크리스토프가 “마켓 레닌리즘”(Market-Leninism)이라고 칭한 것을 쥐고 있다. 마켓 레닌리즘이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권위주의적 일당지배가 섞여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저자들은 중국에서 “왕조의 멸망”을 예감한다. 중국 어디로 가든 공산주의가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상에 버티고 있는 늙은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의 공산당의 고위당료들로부터 군인들과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중국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돈벌이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의 노인네들이 일단 죽고난 다음의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나라가 적대적인 분과나 지역으로 쪼개질 것인가? 경제적 붐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혼란으로부터 출현할 것은 무엇일까? 중국식 파시즘? 부드러운 군사 권위주의체제?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 크리스토프와 우둔은 이번 눈길을 끄는 ‘예언의 욕구’에 흠뻑 만큼 ‘우둔’하지는 않다. 그들의 예언이 머지않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에 대해서 익히 헤아리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 보고 생각했던 것을 들려주기로 작정한다. 전체적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일화들, 저자들이 만나고 알게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서술에서 빛난다. 저자들의 장기는 중국을 다루는 것보다 중국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보인다.

그들이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은 끔찍한 것도 있다. 중국은 2000년도 올림픽 유치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해 있었다. 올림픽 위원회의 베이징 자격심사에 대비하여 정부는 반체제인사들과 기타 요주의 인물들을 몽땅 체포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왕차오루

▷ <김현석 변호사의 교통사고 뛰어넘기>가 출간된 뒤...

김현석 변호사는 5대 일간지를 비롯, TV, 라디오 등 수많은(?) 매체에 출연(대담)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책'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졌고, '법률' 책은 팔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이 담긴 '김현석 변호사'의 좋은 생각을 엮어낸 바다출판기획에서 만든 또 한 권의 좋은 책입니다.

아, 참... 역시 '바다로군!' 하는 축하 전화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빠트릴 수가 없군요

▶ 이젠 준비하는 책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가진 아빠와 엄마가 함께 쓴 것입니다. 형식은 재미있는 에세이입니다.

뭐 이런 영터리 학습지가 다 있어요? (가제)

100점이면 혼날 줄 알아라 (가제)

이거 선생님이 만든 문제 맞아요? (가제)

아직 책 이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쓴 아빠는 아이에게 6.25 전쟁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는데...'로 시작하여 해방 후의 역사, 전쟁의 과정 등등을 두세 시간 동안이나 설명합니다.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라는 아이의 대답에 '그게 정답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전쟁이야'라고 합니다. 이런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학교의 시험 점수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보니... 이런! 원... 시험 문제가 이상하군요... 배가 아프면 소아과나 한의원으로 가면 안된다는군요 내과가 '정답'입니다.

검은 색으로 그린 그림은 '나쁜' 그림이라고 하고 친구를 사랑해선 안되고 '민기'만 하라는군요... 전화받을 때 먼저 '여보세요'라고 한 아이는 '정답'을 모르는 아이로 칩니다. 장래 직업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희망 사항' 같은 것은 무시하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먹는 음식을 무어라고 하느냐? 답은 '양식'이군요.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못 배울까 봐 겁이 나서 아이의 공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글썄...

공룡만한 문제가 그 실마리에 달려 있군요. 각 학년별로 월간 학습지 6종류, 1년치 전부를 구해서 아무래도 '이상한' 문제를 골라 보았더니 600 문제가 넘는군요... 쫓!

어떻게 보면 아이의 교육에 관한 '문제 제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아,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예정입니다.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
책을 잘 만드는 기획자, 편집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8-10 화성빌딩 2층 ☎ 518-6534 팩시밀리 518-6535

(Wang Chaoru)였다. 이 사람은 전혀 무해한 정신박약자였는데 다만 그가 길거리에서 올림픽 위원들의 리무진을 낚고 봄으로써 환경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 그는 경찰들에 의해 집에서 불잡혀 맞아 죽었던 것이다. 수도의 미관을 위해서...

우둔씨는 중국은 사람에게 의해 다스려지는 정치(人治)이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치(法治)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왜 부패가 창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다.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계단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우둔씨는 이러한 체계를 "번덕의 정치"(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정치)라고 적확하게 개념화한다. 따라서 그녀는 "몇년내 다칠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은 법의 지배체계(法治)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보다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내일의 민주주의자들이 모래는 단박 전체주의자들로 바뀌어버릴 것"으로 전망한다.

어느정도, 부패는 필요악일 수 있다. 결국 그것은 경제 생활의 한 상징이다. 돈은 손을 바꾼다. 매음, 도박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온 중국을 휩싸고 있는 다소간 어두운 오락들은 사기업의 원시적 형태일 것이다. 문제는 개인 재산을 보호할 법률없이 그리고 관료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고서는 어떠한 시장경제도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업이란 너무 꼭 짜면 죽어버리는 '동물'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투자는 숨어버리고 만다.

크리스토프와 우둔씨가 이 책속에서 정치와 경제 번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때 보면, 그들은 마감시간이나 원고의 끝을 모를 만큼 진지하며 또한 결론들도, 몇몇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듯하다. 우둔씨는 중국이 현재 전체주의 국가 상태로부터 목하 권위주의 국가 상태로 전이하고 있다고 믿는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경제적 생활을 포함하여—국가의 통제로부터 해방되고 있다는데 이 점은 올바른 지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크리스토프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즉 어느정도의 권위주의 체제는 중국과 같은 나라를 보다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계층의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나라들에서나 가능한 특별한 체제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백만의 소농민들로 넘쳐 흐르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성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중국이 인도보다는 덜 민주적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유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독재자들은 여론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또한 아마도 그런 것이 비민주적이긴 해도 어느정도 필요한 경제적 조치들을 수행하는 데 보다 좋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일단 부유한 중산층이 등장하면 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부유한 중산층의 등장이 지나치게 빠르다면 혼란이 경제발전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점 이겠다. 그러나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이 번영하게 된 원인이 국가의 철권통치에 의해서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경제적 성장은 국민들이 무역과 비즈니스에 자유로우나 아니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의 상업은 실제로 최근까지도 인도에 비해 자유롭다. 인도는 중국보다 민주적이지만, 인도의 경제는 폐쇄된 상점(colosed shop)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돈을 버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때 그리고 그들의 사유재산과 투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때는 그런 환경이 없는 때보다 훨씬 나은 것임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빈곤한 나라에서조차도 독재체제보다 민주주의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우둔씨가 제기했듯이 법의 지배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번덕의 정치로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만약 앞의 것이라면 독재자라 할지라도 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아무래도 민주주의 쪽으로 가기 쉬울 것이지만, 법의 지배가 없는 한에서야 번덕이 죽 쫓듯 하는 통치자의 마음(人治)을 제어할 것이 없을 터이니 아무리 그럴듯한 정치체제로 분석한다 할지라도 독재체제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